



우리말 자유와 함께 자라온 어린이책

대한제국기부터 해방 공간까지

이재철 · 단국대 명예교수

어린이책의 역사를 이야기하려면 당연히 아동잡지는 물론이거니와 단행본·교과서·학습용 도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언급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여러 가지 여건상 아동잡지와 아동문학도서를 중심으로 그 역사를 더듬어 보기로 한다.

《소년 한반도》와 《소년》

우리나라에서 소년을 표방한 잡지는 광무(光武) 10년인 1906년 11월에 창간된 국판《소년 한반도(少年 韓半島)》다. 이 잡지는 '대한제국의 독립기초와 자유정신과 평등주의'를 지향한 권두 광고와 같은 종합교양지였는데 한문 위주의 문어체 표기법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잡지로 융희(隆熙) 1년 1907년 4월에 통권 6호로 폐간된 잡지였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에서 최초의 소년잡지는 육당(六堂) 최남선(崔南善)이 신문관(新文館)이란 출판사를 만들어 창간한 1908년(융희 2년) 11월 발행의 국판잡지 《소년(少年)》(1908-1911, 통권 23호)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의 아동교육은 개화기를 맞아 1895년 《신교육령(新教育令)》이 공포됐고 서당(書堂)을 대신하는 소학교(小學校)가 설치, 수신·작문·습작·산술 교과서가 나오기도 했으나 종래의 서당과 그 규모나 내용에 있어 전통적 관습에 따르는 등 크게 다를 바 없었다. 1906년에는 소학교가 4년제 보통학교(普通學校)로 개편됐으나 일본어가 국어·산수와 함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할 때였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민족주의적 경향을 지향한 《소년》은 과외잡지 이상의 큰 구실을 할 수 있었다.

“우리 대한으로 하여금 소년의 나라로 하라. 그리하라 하면 능히 이 책임을 감당하도록 그를 교도하라”는 매호마다 되풀이된 권두언처럼 교훈적인 글 15%, 전기 및 일화류 12%, 역사·지리·자연과학 등 논문류 12%, 소설 10%, 수필류 3%, 기타 33%로 구성된 80면 내외의 계몽적인 종합교양지였다. 표기에 있어 한주국중체(漢主國從體)에서 국주한중체(國主漢從體)로 옮겨가는 과도기현상을 보였으나 문어체 문장 일반도에서 얼마간 구어체 문장을 시도한 것이 특이할 만

1945년도 8·15광복으로 어린이책의 역사는 획기적인 변화를 맞게 된다. 우리글·우리말을 자유로이 쓸 수 있는 여건이 확보됐기 때문이다. 동요·동화집이 봇물 터진 듯 출간되기 시작했지만, 1950년에는 6·25가 터져 피난지인 대구·부산에서 겨우 유지하는 상황이 1953년 휴전이 이뤄질 때까지 계속됐다.



《소년》지의 후속으로 나온 《붉은 저고리》와 《아이들 보이》 백마 탄 전사와 호랑이 그림의 컬러표지가 독특하다.

했다. 그러나 교육제도가 서당에서 보통학교로 옮겨간 과도기여서 아동보다 청년층 독자를 겨냥한 청소년 잡지일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비교한다면 《소년》지의 후속지라 할 육당의 국판 아동지 《붉은 저고리》(1913, 통권 12호), 《아이들 보이》(1913-1914, 통권 12호), 《새별》(1913-1915, 통권 16호) 등은 본격적인 아동잡지라고 할 만하다. 제호는 물론 한글을 중심으로 한 동화·동요·우화 등 분명한 장르명으로 작품구분을 함으로써 순수한 아동잡지임을 과시했는데, 특히 《아이들 보이》는 백마를 탄 전사와 호랑이 그림의 컬러표지를 매호마다 동일하게 사용하고 독자투고란으로 소년문단적인 《글 쓰느기》란을 두어 소년문학과 신문장 건립운동에 크게 이바지했다.

그러나 1910년 8월 소위 《한일합방조약》으로 일제 강점기를 맞이하고 이내 조선총독부가 설치돼 1908년 저술된 신채호(申采浩)의 《성웅 이순신》·《을지문덕》마저 1910년 11월 민족의식을 고취한다고 강제 압수 폐간시키는 시대상황 속에서 《소년》지도 정간처분을 받았고 결국은 1911년 5월 통권

23호를 마지막으로 폐간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일제의 신민지 정책에 방해가 되는 간행물 발간은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어린이》잡지와 1920년대 간행물

1919년 3월 1일 온민족이 일으킨 3·1운동 곧 '기미 독립운동'은 일제로 하여금 얼마간 무단정책에서 문화정책으로 언론출판정책을 완화시켰다. 1920년 《조선일보》《동아일보》가 창간되고 각종 문예지가 이무렵 창간됐고 종합교양지 《개벽》이 창간되자 얼마동안 잡지·단행본 발간은 총독부의 검열 속에서 다소 숨통을 틔울 수 있었다.

1922년 변안동화집 《사랑의 선물》을 출간한 소파(小波) 방정환(方定煥)은 최초의 아동문제 연구단체인 《색동회》를 동경에서 만들고 1923년 3월 20일 일제 강점시대 대표적 아동잡지인 《어린이》(1923-1934, 통권 123호)를 창간했다. 이 잡지는 개벽사에서 색동회 회원을 주 집

필진으로 처음에는 타블로이드 판형으로 간행됐지만 창간 그해 9월의 8호부터는 4·6판으로 발행돼, 어린이에게 아동문학을 중심으로 한 종합교양지 구실을 다하며 민족주의적 소년운동의 중심체 구실을 다했다.

1920년대에는 1922년 《어린이날》 제정과 함께 20여종의 아동잡지가 우후죽순처럼 간행되어 마치 아동잡지 황금시대를 방불케 했다. 이 시기에는 《어린이》 외에 대표적인 아동지로 《신소년》(1923-1934), 《새벗》(1925-1934), 《아이생활》(1926-1944), 《별나라》(1926-1934), 《학생》(1929-1930) 등이 있었다. 그 봄은 1926년 경에 절정에 이르러 《새벗》이 3만부를 발행하고 1930년에는 《어린이》가 또 3만부를 기록하는 등 그 극성과 열의는 자못 괄목할 만했다.

1920년대에는 단행본도 30여종 간행했는데, 중요한 것을 열거하면 번역동화집 《금방울》(오천석, 1921)·《사랑의 선물》(방정환, 1922)·《세계일주동화집》(이정호, 1926)·《사랑의 학교》(이정호, 1929), 동화집 《무지개》·(고한승, 1927), 동요선집 《조선동요선집》·(고장환, 1928), 동요작곡집 《양양 범버궁》·《중중 때때중》(박태준, 1929)·《조선동요 100곡집》(홍난파, 1928)·《갈입피리》(정순철, 1929)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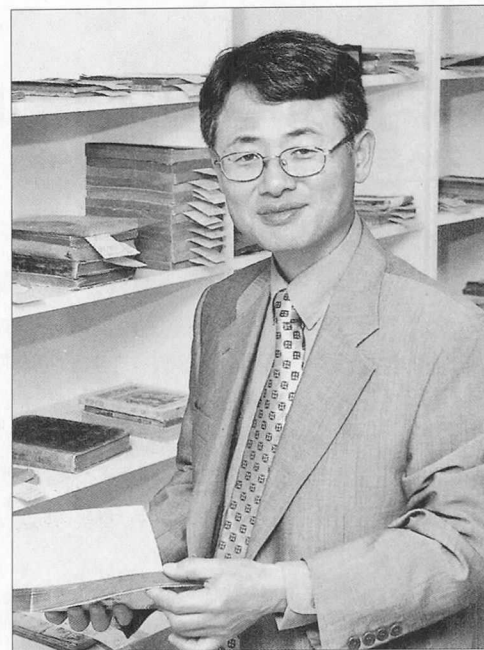
1930년대와 1940년대

1930년대에도 10여종의 아동잡지가 창간됐는데 일제가 1937년 중·일 전면전쟁을 일으키자 점차 조선어 과목을 폐지하는 등(1938) 우리말, 우리글 사용을 통제하거나 금지시켜 1940년대 전반의 수난기 시대로 접어들고 있었다. 중요한 아동지로는 《목마》(1936~1938), 《동화》(1936~1937), 《카톨릭 소년》(1936~1939), 《소년》(1937~1940) 등이 출간됐고 단행본도 해방될 때까지 40여종이 간행됐다. 중요한 단행본으로는 《윤석중 동요집》(1932), 동시집 《잃어버린 댕기》(윤석중, 1933), 《해송동화집》(마해송, 1934), 《조선동요선》(김소운, 1935), 동화



옛책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

옛날 어린이책 모으는 지경사 김병준 사장



김병준 사장

옛것을 무시하고 새것만 좇는 세
태 속에 기록과 보존은 무시되고
자갈한 일상의 역사는 지워져버린
다. 김병준 사장(45, 지경사 대표)
은 하찮게 여겨온 옛날 어린이책을
누구보다 아낀다. 11년째 옛날 어
린이책만 좇다보니 이제는 이렇게
변색하고 찢어진 고서들이 5천종
가량 쌓였다. 우연히 일본 오사카의
'국제아동문학관'을 둘러본 뒤 받았
던 큰 감동을 잊지 않고 자신의 것
으로 만든 덕분이다.

“책에는 100년 전 어린이의 생활
이 고스란히 다 들어 있습니다. 그때 어린이
의 머리모양이며, 책가방을 대신했던 책보
자기 매는 법까지 들어 있으니까요. 어린이
책을 펴다보니 자연히 옛날의 우리 어린
이책은 어떻게 만들어졌나 궁금했고 그렇게
모으다보니 나도 모르게 옛책 모으는 재미
에 푹 빠져버렸지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사옥의 3층 자료실
에는 일제시대 나온 《붉은 저고리》같은 희귀
한 어린이 잡지의 창간호에서부터 마해송·
윤석중·방정환 등의 아동문학류, 교과서와
참고서 하다못해 수련장까지 종류별로 정리
돼 있다. 1940년대에 이미 《아동연감》이 있
었고 《식물채집과 표본만들기》 같은 과학도
서도 꽤 흥미롭게 꾸며져 있어 놀랍다. 책뿐

만 아니라 1930년대 가정통신문이나 통신
표, 학예회 발표문서, 반장임명장, 학교 예금
통장과 음반에 이르기까지 어린이의 생활과
관련된 시시콜콜한 자료들은 들여다볼수록
흥미롭다.

“50, 60년대에도 이렇게 다양한 책을 고
루 잘 만들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의 출판을 반성하게 되지요, 이런 귀한 교훈
을 주는 책이 없다면 안된다는 다짐도 합
니다. 최근엔 70년대 책들도 모으기 시작했
지만 그것마저 구하기가 그리 쉬운 건 아니
예요. 불과 30년도 채 안돼 책이 사라져버
리니 나 혼자만이라도 꾸준히 보관하고 있
어야겠지요.”

좀더 세월이 흘러 분야별로 더 많은 장서
가 쌓이면 그때 ‘어린이책박물관’을 열 생
각이다. 고서 수집은 책에 대한 안목이 있
는 사람이 꾸준히 시간을 들여야 할 수 있
는 일이다. 그런 점에서 오히려 국내 출
판인들이 자기 출판사만의 색깔에 맞는
특정 분야의 옛책을 지금부터라도 모아
볼 것을 권한다. 그런 작업이 쌓
일 때 그야말로 명실상부
한 전문책박물관이 생겨날
수 있으리란 생각이다. 책을
통해 역사와 사회상을 읽게
해주는 기록과 보존의 의무는
바로 지금의 출판인에게 있지
않겠냐는 속뜻이다.

— 김지원 기자



귀중한 고서는
물론 음반과
예금통장 같은
자료들도 흥미롭다.



마해송의 《떡배단배》, 윤석중의 《초생달》, 이원수의 《중달새》, 강소천의 《꽃신》. (사진자료 / 지경사 자료실 제공)

집 《날아 다니는 사람》(노랑근, 1938), 《열세동무》
(노랑근, 1934), 동화집 《까치집》(이구조, 1940), 동
요시집 《호박꽃초롱》(강소천, 1941), 《소국민 흥화
집》(송창일, 1943), 《반도 명작동화집》(김상덕,
1944) 등이 꼽힌다. 이구조의 《까치집》은 클
리피지를 사용하고 동화와 아동소설을 구별
하는 등 당시로는 특이한 책만들세였다. 그
러나 시대는 일본어를 강요하고 우리글을
금지하는 시기여서 더러는 일본을 혼제하거
나 일본어로 된 아동물이 범람하는 형편이
었다.

해방공간의 어린이책들

1945년 8·15 광복으로 어린이책의 역사는
확기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우리
글·우리말을 자유로이 쓸 수 있는 여건이
확보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린이 한글책》
(윤석중, 1946)을 비롯해 못나오던 동요, 동
화집이 봇물 터진 듯 출간되기 시작했지만,
1950년에는 6·25 동란이 발발하여 피난지
인 대구·부산에서 겨우 명맥을 유지하는
상황이 1953년 휴전이 이뤄질 때까지 계속
됐다.

6·25 전쟁 이전에 나온 대표적 아동잡지
는 《주간 소학생》(1946~1950), 《어린이》
(1948~1949), 《소년》(1948~1950), 《아동
구락부》(1947~1950) 등이 있었으며 주요
단행본으로는 《초생달》(윤석중, 1946)·《동
시집》(박목월, 1946)·《중달새》(이원수,

1948)·《별초롱 꽃초롱》(윤복진, 1949)·
《다람쥐》(김영일, 1950) 등의 동요 동시집과
《토끼와 원숭이》(마해송, 1946)·《못난 돼
지》(이주홍, 1946)·《포도와 구슬》(현덕,
1946)·《봄이 오는 날》(임인수, 1949) 등의
동화집이 간행됐다. 재생용지에다 산문인 경
우 8포인트의 크기로 마치 개미가 기어가는
듯한 활자체여서 어린이 책으로는 일반 서
적들과 크게 구별이 안되는 형편이었다.

전시중임에도 피난지인 대구·부산에서는
《소년세계》(1952-1956), 《어린이 다이제스
트》(1952-1954), 《새벗》(1952-1971) 등 중
요한 아동지들이 창간됐고, 1950년대 말까지
주요 단행본으로는 《봄편지》(서덕출, 1951)·《새
싹의 노래》(이종택, 1956)·《꽃밭》(박경중,
1954)·《초롱불》(박화목, 1958) 등의 동화집과
《꽃신》(강소천, 1953)·《꿈을 짚는 사진관》(강소
천, 1954)·《떡배 단배》(마해송, 1953)·《숲속나
라》(이원수, 1953)·《아름다운 고향》(이주홍,
1954)·《깊은 밤 별들이 울리는 중》(김요섭,
1957)·《꿈이 익을 무렵》(신지식, 1958)·《책이
산으로 된 이모기》(이영희, 1958) 등의 동화·소
년소설집과 동극집 《파랑새의 죽음》(주평, 1958)
등이 출간됐다. <다음호 계속>